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최후의 만찬

(마 26:17-30)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자 교회 최초의 성찬식을 그린 내용입니다.

유월절 그 준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평상시처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18절).

여기 ‘아무’는 아무에게나 아니라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으로 아마도 마가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거하며 오로지 기도에도 힘쓰다가 성령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21절).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면 자기들에게도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며 혹시 자기는 아닐까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유독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25절)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가식적인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지 유다 본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26절).

우리는 여기서 가지사(take), 축복하시고(bless), 떼어(break), 주신다(give)라는 4개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사는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으로 선택된 떡이 있듯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 축복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떡을 떼심과 같이 자기를 깨뜨리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찬의 마지막 목적은 주님이 떡을 떼심같이 나도 이웃에게 내 자신을 주어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앞두고 계셨지만 유월절 만찬을 몹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Last Supper

(Matt. 26:17-30)

The text is the content that describes the first holy communion in church as well as Jesus Christ's Last Supper.

The Passover, the strict time began. Jesus' disciples who did not know anything yet made preparation of the Lord's Supper for the Passover as usual. But Jesus who knew all the things that would afterward occur explained plans for the future to His disciples.

Jesus replied,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tell him, 'The Teacher says: My appointed time is near. I am going to celebrate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at your house'" (v. 18)

Here, 'certain' does not refer to a certain man but speaks ironically a man who perhaps might be Mark according to theological scholars. After Jesus ascended into heaven, His disciples came back to Jerusalem, stayed there, and continued instant in prayer. In the

meantime, the place that they experienced the advent of the Holy Spirit was just the upper room of Mark

Finally, the Last Supper, the First Holy Communion was progressing.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 (v. 21).

His disciples expected that if Jesus would establish the government of Israel, their career path would be open. Meantime, what Jesus said the man who would sell Jesus was in them was very much shocking for them.

When other disciples were worried if something was wrong with him and felt uncomfortable, Judah said, "Surely not I, Rabbi?" (v. 25). Judah showed very pretentious figure. He himself Knew very well whom Jesus talked about.

After such a thing happened, Jesus in earnest, carried out the Last Supper, the first Holy Comm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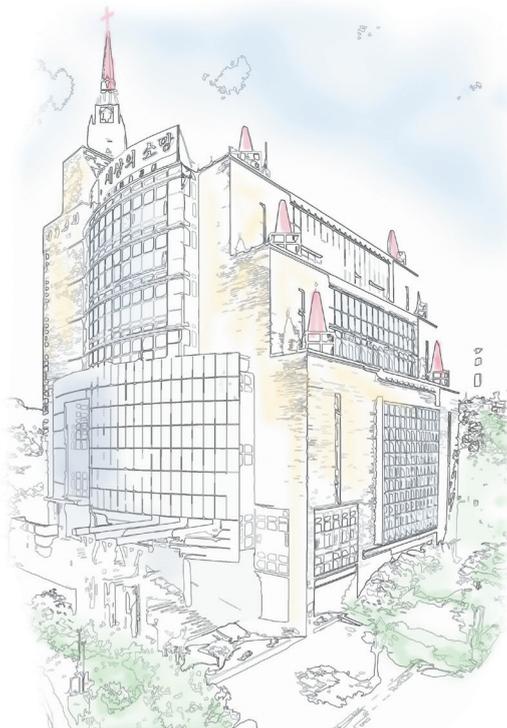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v. 26).

Here, we need to notice four verbs: take, bless, break, and give. The word, 'take' means that, just as there is the bread that is chosen

among much bread as the bread of Holy Communion, so we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among many people. And the word, 'bless' indicates that we are the people being born to be blessed by God, the life of Christ indicates that just as Jesus breaks bread, so He breaks His life, and it indicated that we who received God's life live the life of giving. The last purpose of the Holy Communion is that just as Jesus breaks His bread, so we give ours to the neighbors to let them receive their life.

My beloved Christians,

Though Jesus approached the terrible sufferings of the cross, He waited the last supper of the Passover. That is the reason why we are able to be saved and live our life with the desire, life, and ability of eternal kingdom of God. By meditating deeply Jesus Christ who was nailed and bled on the cross until He will come again, and by using fruitfully us for the gospel as one bodied churc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교육1국 : 7월 24일(금)~25일(토) / 교회
 중등부 : 7월 23일(목)~25일(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예수님을 만나러 레디~ 고! (요 3 : 16)	박노철 목사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와! 예수님이다 (요 3 : 16)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어메이징 그레이스 (롬 3 : 23-24)	박노철 목사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7/24(금) - 25(토)	아가페타운	믿음으로 승리해요 (요일 5 : 4)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중등부	7/23(목) - 25(토)	아가페타운	Who am I ? (사 43 : 1)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7/30(목) - 8/1(토)	아가페타운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하다 (단 1 : 8)	박노철 목사 천세중 목사
청년1부	7/28(화) - 31(금)	경기도 광주	섬기는 기쁨, 누리는 은혜 (행 9 : 31)	박노철 목사
청년2부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정대은 전도사
에바다부	7/30(목) - 8/1(토)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 : 3-12)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2015년 인도 비전트립팀 조직 확정

8월1일(토) ~8일(토) / 인도 벵갈로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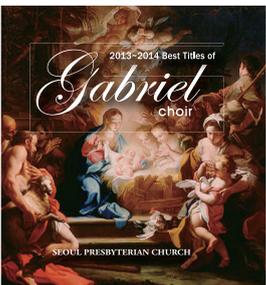
2015 인도비전트립팀이 그 동안 선교교육을 받으며 팀원을 확정하고 각 팀원간 담당지역을 결정하였다.

의료팀 7명, 일반팀 10명, 어린이팀 13명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을 통하여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2015 인도 비전트립팀 조직 및 담당지역〉

- 지도 : 서준권 목사 - 팀원들에 대한 영적인 훈련과 예배 및 교육 담당
- 단장 : 박종권 집사 - 지도목사의 지도에 따라 비전 트립의 기획과 전반적인 행정 총괄
- 총무 : 신두호 - 인원점검 및 연락 업무 선교자료집 제작

- 회계 : 이미경
- 서기 : 진영재 - 선교팀 기록업무
- 촬영 : 임종현 - 전 과정의 활동 촬영
- 어린이사역 팀장 : 박은영 - 선교사역 중 위심 성극 성경공부 어린이 사역 담당
- 팀원 : 황선영 민채원 전윤희 한연주 한동현 박주원 정예훈 이희준 박상준 박성준
- 의료팀장 : 김봉배 - 현지인 진료사역 간호사역 약국사역 총괄
- 의료팀원 : 정철웅 정현구 이승헌 이지동 임흥수 정일윤
- 지원팀장 : 최춘숙 - 선교팀 주방 및 지원사역
- 팀원 : 박수옥 최소희 정기자 김희경 우승희



가브리엘 찬양대 2013~2014 best title CD 제작

1부예배를 담당하는 가브리엘찬양대(대장 : 최형열 장로, 지휘 : 백경화 권사)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 CD를 제작하였다.

2013년~2014년 주일예배 찬양 및

특별찬양과 절기찬양 중 18곡을 선별하여 제작하였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가브리엘찬양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란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7)

〈문 177〉 스테반은 사도행전7:43에서 아모스 5:26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기운' 대신에 '레판'이라 한 것은 그가 구약을 잘못 알았기 때문인가요?

(답)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언급하면서 스테반이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70인역 성경(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너희 신 레판의 별'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사도행전7:43의 말씀과 거의 같은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서의 '기운'을 사도행전에서는 (레판)의 별로 읽고, 신들(Rompha)의 별은 '레판'으로 읽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곳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암5:26)는 말씀 중 식곳(Sikkut)은 '성소'라는 보통명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히브리어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모음을 달리 붙여 사뭇(Sakkut)이라 읽으면 별을 신으로 부르는 총칭(또는 별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식곳'은 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반은 70인역 성경을 따라 구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mpha로 읽은 네슬(Nestle)의 25판은 바티칸 사본에 근거한 것이며 시내산 사본에서는 Romphan으로, 베자와 라틴어 역에서는 Remph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는 Raiphan으로 그리고 보드마(Bodmer) 텍스트와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레판(Rephan)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을 세계 연합성서공회가 출판한 헬라어 신약성경과 네슬26판에서 그대로 받아 드림으로 스테반이 산헤드린에서 헬라어로 연설한 말은 레판(Raiphan)이라고 읽은 것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레판이 바르게 읽은 것이라면 스테반은 70인역 성경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신의 이름을 바르게 발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잘못 받아 쓸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문 비평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서 보여지는 등 스테반의 무지나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로 이방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구전으로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엔 추측하여 발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서에 나타난 기운(Kiyyun)도 마조라 학자들은 그렇게 읽었지만 Kaywan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식곳과 기운'을 몰록과 레판으로 읽음으로 이방신의 명칭에 대한 발음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아모스서 (70인역)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5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초대

예수님을 만나러 레디~오!



구본혜 전도사 (유아부 지도)

2015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예수님을 만나러 레디~오!”(요3:16) 라는 주제로 7월 24일(금)-25일(토)에 열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 다양한 순서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성경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

길 뿐 아니라 몸으로도 익힐 수 있도록 4개의 학습센터와 기쁨놀이터, 한여름의 추억을 더해 줄 물놀이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가정사역과 상담전문가인 한화선 목사님을 모시고 “엄마(아빠)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라는 주제로 학부모 모임이 진행됩니다.

영, 유아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수은 전도사 (유년부 지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는 AMAZING GRACE-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제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AMAZING GRACE’라는 주제에서 나타내듯이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탐정’이 되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

수님을 죽게 한 범인을 밝혀내기도 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었던 갱바도기가 지역의 지하도시 데리구유속 비밀을 수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와 모든 활동들은 공과와 예배에 함께 연결되고,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진리를 듣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듯 올 여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서울교회 유년부 여름성경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옥준용 (중등부 학생회장)

7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Who am I?(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여름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 중등부 지도를 맡고 계시는 이진광 전도사님, 고등부의 천세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세상문화에 물들어가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힘든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품고 계신 비전을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오! 예수님~이다



양세라 목사 (유치부 지도)

가족과의 여행만큼이나 자녀들의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여름성경학교의 추억입니다. 유치부는 이번 주 금요일(24일)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2015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말씀과 찬양의 기억들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믿음을 더욱 탄탄하게 해줍니다.

2015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16절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

신 기쁜 소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되며, 아이들의 삶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경적 오감 활동, 신체놀이, 영어찬양배우기, 어린이양 구출작전, 미션 워터파크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친구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맛있는 간식과 게임을 즐기다보면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어느새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7월24일 금요일 오전 9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심진의 목사 (초등부 지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후회와 체념을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2015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려 합니다. 이 일을 위해 2015년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성경공부, 승리의 올림픽, 활동센터, 천국 기도회, 슈퍼스타S, 브레인 서바이벌, 물놀이, 도전 바이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2015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Who am I ?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최희연 성도 (청년 1부)

청년부는 지난주 월요일(13일)부터 목요일(16일)까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로 국내전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수련회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전도수련회에 대해 잘 몰랐고 그저 이제 대학에 입학했으니 좀 더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도치 않게 이번 전도수련회 티셔츠디자인 공모전에서 저의 다락방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작은 원이 모여 기독교의 상징인 물고기가 되고 중앙에 분홍 하트가 있는 디자인은 부족하고 각자 다른 모습을 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의 큰 사람이 이루고 그로부터 기쁨과 은혜를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청년1, 2부 언니, 오빠들의 철저한 회의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와 헌신, 시간적 물질적 희생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저는 고성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는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언니들을 도와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성 어촌 아이들이 밝고 순수하며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의 재능이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작은 부분으로 쓰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수요일에 어린이·청소년 사역 팀 발표를 도우면서 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며 울컥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발로 뛰시며 집집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70인 전도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장작을 날랐던 청년부 오빠들, 신속하게 차량을 운전해주셨던 오빠, 더운 날씨에 정성스럽게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하신 권사님들, 의료선교로 고성주민들을 치료한 의료팀 집사님들, 주방에서 땀 흘리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권사님들, 뛰어난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지도한 마음도 얼굴도 목소리도 예쁜 청년부 언니들을 포함한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분들은 저의 신앙적 롤 모델입니다. 또한 고성 국내 선교 팀을 위해 기도해주신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된 자리에 작은 구성원으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1일(화)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군사랑운동을 위한 예비모임을 소집한다. 23일(목)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1주년기념식 격려사를 한다.

■ 개업: 9교구 흥영군 성도(13교구 이금순 권사 장남)미케닉 케이 Mechanic K(수업차전문정비)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7 전화 6449-5182 010-3642-3124

■ 주일식당봉사: 이삭 선교회(7.19) 루디아 전교회(7.26)

■ 금주의 식사 제공: 서은석 집사 김미성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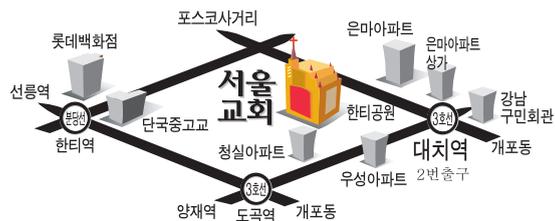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여름수련회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2. 인도 비전트립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3. 청년부 전도수련회를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